



# 11・2 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

2025년 11월 2일 | 정오 시작  
시바공원 제 23 호

외국인 배척 안 된다!  
국우에 맞서자!

미일 중국침략전쟁저지! 미국,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을 멈추자!  
외국인노동자·난민에 대한 강제송환 멈추자!  
인종 프로파일링, 경찰과 입국관리국 (ICE)의 폭력을 멈추자!  
민영화, 노조파괴·비정규직화를 멈추자!

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 2025년 11월 2일

(일)- 주최:

- 국철차바동력차노동조합 (도로치바)
- 국철투쟁전국운동
- 개헌·전쟁저지! 대행진

11월 2일 (일) 정오

집회·행진

시바공원 제 23 호 지구

도쿄도 미나토구 시바공원 3 초메

지도:



# 국제적으로 단결한다면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에서 전쟁, 배외주의,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힘을 보이자!**

전 세계 우리 노동자 앞에서 팔레스타인 잔학한 학살이 계속되고 있다. 이란 핵시설이 폭격당하고 일본도 이 전쟁에 가담하고 있다. 세계전쟁으로 가는 길이 이미 시작하고 있다.

제국주의 제국에선 국우 세력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도 여당이 '외국인 단속' 을 거론하고 제정당이 다 외국인 배척 선동을 넓혔다. 선거운동에서는 1923년 간토대진재이후 조선인과 중국인 학살을 상기하는 말까지도 나왔다. '중국의 위협' 을 부추기면서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 준비태세를 확실히 갖추어 있다.

일본에 있어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최악이다. 노동기본권이나 인권이 사실상 부정되고 있다. 최근 보도되었는데 도치기현의 있는 농장주가 잔업 수당을 내지 않고 개다가 이른바 '연수생' 종업원 3명에 대해 매일 성폭행하고 있음에도 현재 기소되지 않고 자유로운 신분이다. 개정 출입구관리 및 난민인정법은 난민 신청자, 특히 계속 신청을 각하되 온 사람들에게 가혹한 강제송환을 규정한다. 이러한 전쟁, 우경화, 그리고 차별 격화는 제국주의 쇠퇴이기도 한다. 이에 우리 노동자는 반격하고 이런 향상을 타파해야 한다.

## 도로치바 국제연대

도로치바는 1965년 한일조약 반대투쟁이후 일본 침략, 전쟁, 그리고 차별 배외주의에 맞서 투쟁해 왔다. 1980년대 일본에서 최대한 노조파괴와 대량해고인 국철 분할·민영화에 반대하면서 파업을 감행해서 단결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노동조합이다.

도로치바는 이라쿠전쟁이 발발한 2003년 한국의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와 연대관계를 맺고 이래 양국에서 개최하고 있는 11월 노동자집회를 비롯한 여러 기회를 통해 연대해 왔다. 또한 미국 ILWU(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이나 여러 나라 노동조합, 그리고 재일, 제일 외국인 노동자, 난민들과의 연대를 진행해 왔다.

## 비상계엄을 분쇄한 한국노동자들이 11.2 집회 참가 예정

한국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군을 동원해서 야당의 원이나 노조 간부 구속을 기도했지만 한국노동자 시민들은 총구를 겨눈 계엄군과 대치하면서 한편으로는 총파업에 돌입해 드디어 윤 대통령을 타도했다.

이런 역사적인 투쟁을 전개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올해 11월 노동자집회에 참가해 주실 예정이다.

## 11월 2일 노동자집회에 참가하고 함께 투쟁하자!

힘을 모은다면 계급투쟁을 통해 전쟁을 저지하고 제국주의지배를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연대와 새로운 운동의 발전을 만들어 나가자!